

## 09/11 추석에서 동창과 만난 후 느낀 점

해빈이의 연락으로 10시 쯤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승태, 덕형, 재홍, 한수, 상현, 경수가 있었다. 이미 몇 잔을 마신 건지 얼굴이 많이 상기된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랬다.

“어이~ 현대~”

나를 이름이 아닌 직장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에 놀랐다. 그 이후로 나는 몇 십분을 아니 1시간 정도를 ‘현대에 가서 출세한 친구’, ‘돈 많이 버는 친구’ 등으로 불리며 얼마는 받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왔다. 장난스러운 말로 일론 머스크와 사촌이다, 루나 코인 대표와 아는 사이이다 등과 같은 농담도 했다. 그런데 나는 살짝 불편했다. 상현이는 이런 농담을 잘하는 친구이고 한수도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이다. 경수도, 덕형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붉은 승태와 재홍이는 뭔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얼굴이 많이 붉어서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 보였다. 일단 승태는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재홍이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 둘이 말이 많았다. 아마 오늘도 말을 많이 하고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해서 많이 마셨을 거라고 생각해본다. 그런데 내가 오고 나는 이 둘이 말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 내가 온 이후에 이 둘이 말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순전히 나의 추측이기는 하다. 그러나 승태는 내가 온 이후에 곧 집으로 귀가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다녀오시면 간혹 짜증이 나섰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지들 자랑만 하고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친구들은 지들 자랑하는 맛에 살기 때문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관계이니 끊어버리고 새로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계속 만났다. 나는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어찌되었거나 간접적인 자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승태와 재홍이는 짜증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았다. 나의 아버지 처럼.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인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유익하지 못한 관계지만 끊지 못한 이유,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힘든 이유, 짜증이 났던 이유(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를 말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담아서 해빈이에게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해빈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개내들 생각이다. 너가 개내들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물론 이 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는다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여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노력했고, 힘들었고, 선택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감정은 그 술집에서 마무리 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